

2006년 신년인사회-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초청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각계를 대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성취하시면 나라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다 좋아질 것 같아 제 소망보다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적어왔는데 여섯 분이 한 토막씩 다 잘라 말씀 하셔서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약팽소선(若烹小鮮)의 두 가지 해석

오늘 우리 김학원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교수들이 작년을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고 했고 올해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고 한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지긋이 익도록 기다려야지 자꾸 뚜껑 열고 뒤집고 흔들면 다 깨져버리고 못 먹는 것인데, 올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생각할 때 개혁이네 뭐네 하고 들쭉서서 잘 가고 있는 나라 흔들지 말고 좀 가만 놔두라는 취지라고 아침에 TV에서 봤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아침TV를 못 본 것 같아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만 놔두라는 얘기는 대단히 보수적인 구호 아니냐? 올해는 국민들이 만사가 귀찮으니까 가만 놔두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뜻인데, 이대로

가도 될는지 모르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구호인 거 같아 대단히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문 칼럼을 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경제성장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성장 성장 하면서 들쭉시지 말고 그쪽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대신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일들을 챙겨서 하다보면 바쁜 일도 다른 일들도 잘 돼 갈 터이니 너무 성장만 부르짖지 말아라, 하고 써 놓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가지고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적어왔는데 김학원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로 하신 여섯 분의 덕담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듣기 따라 조금씩은 무게 중심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제 바쁘지 않다는 분도 있고 바쁘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바쁘다고 생각해도 어느 쪽이 더 바쁘냐 하는 문제에 가면 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천천히 또 한편으로는 바쁘게 가야 할 을 한 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가 입법성과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입법성과를 꼼꼼히 따져서 보고를 했는데, 그 성과는 2003년보다 2004년이, 2004년보다는 2005년이 좀 좋았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기 때문에 성과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고 또 개선을 위한 평가 관점과 평가의 대상, 순서를 좀 더 충실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좀 다듬어 보자고 의논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도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정비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급하게는 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정부에서 바쁘게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일인데도 국민들의 주문은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2003, 2004, 2005 지나면서 계속

반복하는 일들을 고쳐서 이제는 거의 매뉴얼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부 제도는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런 눈으로 인한 피해 같은 대책이나 지원도 해마다 같은 말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제도를 정비해서 시스템 있게 해 보는 것이고, 실제로 거의 완비되어 갑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했는데, 교통사고나 암 같은 불의의 사고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천재지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우리 사회가 함께 꺼안고 가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우리가 버려두었던 영역도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올해 대충 1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700조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3조 5천억이 들어도 0.5%입니다. 그 정도를 안고 갈만한 우리 국가적 역량이 되지 않느냐, 제도를 다듬어 가자,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미진한 제도를 천천히라도 차분히 하나 하나 이렇게 다듬어 가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면 되겠구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 언론들을 보면 올해 다 바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장잠재력이 10년 뒤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위축되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3만불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부총리가 예측하기로는 2012년 정도에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이르고, 조금 더 가면 3만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10년 동안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바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 신문들을 보면 양극화 문제가 더 바쁜 일로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라면 또 가서 봐야 알겠지만 성장문제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은 그런 대로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육이나 노사관계 등의 몇 가지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만 해 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많은 대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10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토대로 한 자원을 가지고는 10년 뒤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또 보는 사람들마다 중점이 많이 다릅니다. 빨리 성장해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앞으로 10년이 바쁘다고들 말하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편으로는 천천히 또 한편으로는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순된 얘기죠. 제 가까운 학교 선배 한 분이, 쇠뿔은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고 무른 감도 쉬어가면서 먹으라는 말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날 해 왔던 대로 그냥 고르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해서 열심히 해 가면 다 잘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

세종대왕께서 조세제도를 재편하자 해서 연분9등 전분6등 제도를 과거시험에 다 냈지만, 땅을 많이 가진 재상 판서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행을 못하다가 그 시험을 낸지 약 15년 뒤에 세종 9년 때 과거시험문제를 내고, 그 뒤의 어전회의에 공법조세개혁을 상정을 했는데 반대로 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년 지난 세종 25년에 다시 이 제안을 내놓습니다. 16년 동안 세종대왕이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16년 뒤에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6년 내 하고 싶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또 반대를 하니까 약 17만호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17만호면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조사를 실시해서 대체로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26년에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것도 금방 안 되고 10년이나 걸려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제군주 시대에 제도 하나가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 지금 몇 년 걸리는 것은 참 빠른 것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은 오래 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도 어찌 보면 빠르다 싶기도 한데, 옛날에 문제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 보면 이만큼 오는 데도 수십 년이 걸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대동법이라는 것을 선조 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경기 일원 지역에서는 진작 시행이 됐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결국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끝이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좀 안 좋고 뒤가 아주 좋은 것이 좋은 과

오늘 많은 말을 했지만 횡설수설이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성취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소망이 다 다르고 서로 부딪혀서 답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런 대로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이 쓴 고전 강의책에 보니까 주역 64괘 중에는 좋은 괘도 있고 나쁜 괘도 있는데, 전적으로 나쁜 괘만은 없다고 합니다. 앞이 나쁘고 뒤가 좋은 과, 아니면 앞이 좋다가 뒤가 나쁜 과가 한 괘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이 좀 안 좋고 뒤가 아주 좋은 것을 좋은 과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 다분히 보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연말 주가도 좋고 올해 주가도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너무 좋으니까 걱정해야 하는 한 해가 아닌가, 앞이 좋으면 뒤가 그렇지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장기업들이 저렇게 너무 잘 가니까 역시 주역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한 군데 그들이 많이 진 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나뉘었던 곳은 좀 많이 좋아지고 좋았던 것은 조금만 나빠지도록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게 10분이 주어졌는데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 중에서 다 좋아지는 결론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참 별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과 사리가 통하는 사회

최소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 그것을 크게 보면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더 크게 보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축적해 온 건강한 상식, 사리라고 하는 것이 좀 통했으면 합니다. 사리가 뭔지 좀 혼란스러우면 그래도 명문화된 규범이라도 우리가 함께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각기 자기만 좋은 나 혼자만의 잣대로 만드는 일방적 상생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함께 갈 수 있는 상생도 되었으면 합니다. 또 작년에 우리 농민 두 사람이 당했던 불행한 일도 없이 잘 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기본 위에서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 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역량이 뛰어나서 권영길 대표님 말씀대로 어지간히 시끄럽고 갈등이 좀 있더라도 잘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것들도 다 잘 해내는 역량이 있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더라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보편적 상식 그리고 사리라는 것이 존중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바뀌서 생각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올 연말은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출발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발보다 뒤가 더 좋아서 역시 선홍후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함께 열심히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